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 삼지연에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삼지연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은 거례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탐승을 위해 9월 20일 삼지연에 도착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삼지연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 인민무력상 룡군대장 노광철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량강도당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 량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국동지가 비행장에 나왔다.

오전 8시 15분,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삼지연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남측공식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중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특별수행원들인 각계인사들이 함께 왔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삼지연군인민들이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부인, 수행원들과 함께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위해 삼지연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위해 9월 20일 삼지연못가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 청장 등 남측수행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 인민무력상 룡군대장 노광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를 비롯한 우리측 간부

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오찬회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맞이하였다.

오찬은 동포애적이며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오찬에 앞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삼지연못가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삼지연의 못가에서 산책하시며 환담을 나누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